

씨앤팜, '폴리탁셀' 유럽 특허승인

〈무고통항암제〉

확장성 높은 약물전달 플랫폼 구조·제조방법에 대한 물질특허

현대바이오 대주주 '씨앤팜'의 체장암 치료신약 원천기술 특허가 미국에 이어 유럽(EU)에서도 승인됐다.

코스닥기업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 '씨앤팜'은 무고통항암제 '폴리탁셀'(Polytaxel)을 포함하는 폴리포스파제 나노 약물전달체의 구조와 제조방법에 대한 물질특허를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승인받았지 6개월만에 유럽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씨앤팜이 특허를 확보한 폴리포스파

제계 약물전달체는 암조직 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는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시스템이다. 다양한 약물을 탑재할 수 있어 체장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질환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씨앤팜과 공동으로 무고통항암신약 폴리탁셀의 체장암 글로벌임상을 추진 중인 현대바이오는 올해 6월 개최된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2019'에서 세계 최초로 암 완치를 위한 무고통항암치료 '노엘테라피'를 공식 발표했고, 이를 통한 완치 수준의 체장암 동물실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학회서 인증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제도 기준 충족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가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2년 8월까지 3년이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고 있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뇌졸중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 세부 평가 항목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은 ▲진료 지침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 체계 ▲뇌졸중 집중치료실 ▲환자 평가 및 관리 ▲재활 ▲뇌졸중팀 ▲질 향상 활동 및 지표 관리 ▲교육 ▲의료 장비 등을 평가해 이뤄졌으며, 이대목동병원은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존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

있다"며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2005년부터 서울지역에서 2번째로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혈전용해제 시술 100예 달성에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졸중 진료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세경 기자

“인플루엔자,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독감백신 접종 날’ 토크콘서트

“인플루엔자는 독감으로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감기와는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2회 독감백신 접종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독감백신 접종 날’은 국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백신접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독감백신 접종 날을 기념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평소 독감에 대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중웅 대한내과개원의 사회장을 초빙, '의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 아래 ▲오프닝 및 관객과의 인사 ▲독감 백신 접종 날이란? ▲관객 현장질문 및 패널 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웅 회장은 "10월 15일부터 고령자, 어린이(1회), 임신부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이 시행된다"며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이 접종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매년 접종을 맞아야 하나"는 질문에는 "백신의 면역력은 다음 해부터 감소되며 해마다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독감백신 접종 날을 처음 알게 됐다"며 "백신 접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세경 기자



내게 맞는 호텔 찾기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금수장 패키지 복고 감성으로 탄생 호텔 일부 객실 1955년 모습 재현 개화기 스타일 의복·장갑 등 준비 '청굴' 등 다양한 계절메뉴 마련

'엠베서더 호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다. 앞, 뒤 명칭만 조금 다른 그룹사 호텔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으니 말이다.

이 엠베서더 호텔 그룹의 시작은 바로 '금수장'이다. 국내 첫 민영 호텔이기도 하다. 1955년 개업한 금수장은 1965년 '엠베서더'로 바뀌었다. 이후 엠베서더 호텔 그룹은 1987년 프랑스 계열 호텔 체인 그룹인 아코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의 풀만, 노보텔, 이비스, 머큐어 등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했다.

한국 호텔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엠베서더. 그 전신인 '금수장'이 서울 금천구 독산에서 부활했다. 엠베서더 호텔에서 3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이하 노보텔 독산)이 그 주인공이다.

◆레트로 무드로 돌아온 '1955 금수장'

노보텔 독산은 1997년 9월 개관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도심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져있지만 꽤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다. 광명동굴, 가산디지털단지 패션 아울렛 콤플렉스 등 특정 관광지나 쇼핑지가 가깝고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비즈니스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다.

스물 두 돌을 맞이한 호텔이지만 그 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숙박객을 유혹할 패키지 상품이나 행사를 끊임 없이 선보이며 '호캉스 전성시대'에 동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금수장' 패키지.

/노보텔 독산

참 중이다.

금수장 패키지는 최근 트렌드인 '복고' 감성을 담아 탄생했다. 호텔의 일부 객실을 1955년, 그때 그 시절 금수장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다. 객실 한쪽 코너에 전화기와 램프, 액자 등 고풍스러운 소품들을 배치했고, 개화기 스타일의 의복 4벌과 장갑, 부채, 모자 등을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금수장' 패키지.

함께 준비했다.

패키지의 상세 구성을 보면 ▲프리미어 스위트 객실 ▲가든테라스 조식 뷔페 ▲프리미어 라운지 이용 ▲프릴 츄커피 1박스 ▲인발란스 휘트니스 클럽 내 헬스장·실내수영장·사우나 혜택 제공이 포함돼 있다.

가격은 2인 기준으로 1박 투숙 시 15만9000원(세금 별도)이다. 최대 3인까지 이용이 가능해 친구들이 함께 즐기

기에 좋다.

노보텔 독산 관계자는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복고 열풍을 겨냥, '뉴트로(New+Retro)' 무드의 객실을 준비했다. 복고 감성에 흠뻑 취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수장도 식후경

노보텔 독산을 채운 것은 '복고'뿐만이 아니다. 허겁에 가을 낭만을 엮어줄 계절 메뉴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그 첫 번째는 '청굴'이다. 청굴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약 1달간만 수확이 가능하다. 레몬에 비해 비타민C가 10배 가량 높아 면역력 강화나 피부미용,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노보텔 독산은 건강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힐링' 패키지를 오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에는 라운지 바 휘트니스의 가을 체질 음료 프로모션 '청굴을 담다' 메뉴 2잔이 포함돼 있다.

요일별 프로모션은 새로운 선택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보텔 독산의 뷔페 레스토랑 '가든테라스'에서 진행되는, 가을을 맞아 메뉴가 바뀌었다. 주요 메뉴는 토시살, 스노우 크랩, 동파육, 전가복, 감바스 알 아히요, 간소새우, 감자 매생이죽, 밤수프, 동래파전, 야마이모 샐러드 등으로, 40여 가지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노보텔 독산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프로모션 메뉴 중에서 고객 반응이 좋았던 인기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전했다.

먼저 월, 화요일에는 점심, 저녁 모두 정상가에서 20% 할인된다.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모든 이용 고객은 어린이 요금을 9900원만 내면 된다. 목, 금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무제한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뷔페 레스토랑 '가든테라스'의 메뉴.

G9, '스마일클럽' 회원 최대 30% 추가할인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트렌드라이프 쇼핑사이트 G9(지구)가 멤버십서비스인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일클럽'은 지난 2017년 4월 이

베이코리아가 국내 업계 최초로 런칭한 유료 멤버십제로, 가입 즉시 G9를 비롯해 G마켓과 옥션의 최고 등급이 부여된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웰컴 기프트로 스마일캐시 3만5000원을 제

공하고, 한 달 무료 이용 신청 즉시 2000원을 지급해 총 3만7000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G9는 스마일클럽 회원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관을 별도 운영하고, 매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월의 혜택은 최대 30% 할인 쿠폰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